

제 목	국 문	우리나라 1995년, 1996년 콜레라 발생근원에 대한 소고		
	영 문	A short study of the source of cholera epidemic of Korea, 1995-1996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오희철 <sup>1)</sup> , 김문식 <sup>2)</sup> , 이종구 <sup>2)</sup> , 김호훈 <sup>3)</sup> , 김상순 <sup>2)</sup> , 황창용 <sup>2)</sup> 1)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)보건복지부 3)국립보건원		
	영 문	Heechoul Ohrr <sup>1)</sup> , Moon-Sik Kim <sup>2)</sup> , Ho-Hun Kim <sup>3)</sup> , Sang-Soon Kim <sup>2)</sup> , Chang-Yong Hawng <sup>2)</sup> , 1)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)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)National Institute of Health		
분 야	역학	발 표 자	오희철	
발표 형식	구 연	발표 시간	15분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 ○ ), 연구중 (     ) → 완료 예정 시기 :     년     월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지난 1995년과 1996년에 확인된 콜레라 환자 발생의 발생 근원을 추정하는 가설의 설정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환자발생자료, 환자면접자료, 가검물, 검사결과자료 등의 정리분석</p> <p>3. 연구결과</p> <p>가. 1995년 8월 26일 김○○(여, 87세)가 포항에서 콜레라(V. cholera, Eltor Ogawa)환자로 밝혀진 후 9월 14일까지 20일간 전국에서 총 68명이 밝혀졌다.</p> <p>나. 지역적으로는 강원도(6명), 경북(5명), 부산(1명), 인천(25명), 경기(4명), 대전(2명), 그리고 충남(25명)으로 의심되는 감염원이 있는 충남 천안시 북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규모는 적지만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.</p> <p>다. 외국은 물론 서해의 강화군에서도 섬 지역인 서도면을 벗어난 적이 없는 이○○(여, 58세)가 1995년 9월 3일 심한 설사로 입원 후 콜레라로 진단되었다.</p> <p>라. 강화군에서 채취한 소라를 천안의 결혼식집에 가져갔고 이 음식을 먹은 하객 중 26명이 발생하였다.</p> <p>마. 1995년 9월 12일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선착장과 황천리 포구에서 채취한 해수등에서 V. Cholera, O1, Eltor Ogawa가 분리되었다.</p>				

바. 콜레라 감염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.

첫째, 해수가 먼저 콜레라 균에 오염된 후 사람으로 가는 것.

둘째, 외국에서 유입된 콜레라 환자가 설사등으로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다시 이것이 사람에게 가는 것,

이 중 1995-1996년 콜레라 발생양상은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.

#### 4. 고찰

우리나라 콜레라 발생은 외국에서 유입된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환경병원소의 가능성이 주목받아야 한다. 콜레라의 환경병원소설은 세계 곳곳에서 지지되고 있는 설이다.